

‘고소득 귀농인’ 최다 장성군, 맞춤형 지원 강화

품목별 상담 멘토단 구성·예비귀농인 현장 지원 “영농 창업 희망 예비 귀농인에 큰 힘 될 것 기대”

전남지역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 귀농인’ 최다 지역인 장성군이 예비 귀농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13일 전남도가 2020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법인에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귀농인은 총 75농가로 확인된 가운데 장성에 가장 많은 11농가가 위치해 있다.

‘귀농·귀촌 1번지’로 잘 알려진 장성군은 맞춤형 지원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 평

균 1500가구의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이전보다 확대된 총 8개 사업을 펼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의 지역 융화를 돕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지원사업’부터 새내기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귀농인을 돕는다.

최근에는 예비 귀농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주기 위해 딸기, 토마

토, 스마트팜 등 12개 ‘품목별 상담 멘토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 직장인부터 품목을 결정한 귀농인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정기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예비 귀농인이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멘토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분야 멘토가 농장을 방문해 조인과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독보적인 지원 정책 추진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적극 돕겠다”면서 “품목별 상담 멘토단이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



장성군이 운영하는 귀농·귀촌인 멘토단이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179명 모집 24일까지 읍·면 신청·접수

화순군이 17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공공근로 사업(148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31명) 참여자 179명을 모집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화순군은 상반기(2~6월)에 19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총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투입해 5개월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근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한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화 등 50개 세부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다문화 가정 지원, 고인돌 유적지 정비 등 4개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 신청 가능. 3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자격, 소득, 재산, 참여 이력 등 다양한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6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발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7월 1일부터 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팀(061-379-3151, 379-315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빛누리초등학교 교육 장면

나주시, 초등생 눈높이 맞춘 ‘아동권리교육’ 연말까지 관내 24개 초교 대상... 아동·청소년 권리 인식 함양

나주시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

나주시는 13일 빛누리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연말까지 관내 24개교 초등학생 6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 사회를 뜻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제8항)’ 실천을 위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앞서 지난 해 3개 초교, 1개 아동시설과의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전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아동권

리교육 정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은 아동친화도시의 핵심 주체이자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이 아동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권리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문 강사를 학교로 직접 파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감수성, 아동의 4대 기본권 등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 동영상 시청, 토의 등을 접목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신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전화팀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인식 향상과 아동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시청 전 공직자와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동권리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교육생 모집

쌀 소비 촉진 주도 전문 리더 육성

구례군은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으로 농업인 및 농촌지역 소비자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을 5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운영한다.

교육생 모집은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자는 25명으로 구례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우리 쌀의 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군에서 재배된 밀을 이용해 쌀과 밀 두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만드는 베이커리 실습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쌀과 밀로 만든 베이커리 과정을 직접 체험 할 수 있어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실생활 적용 가능한 레시피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신청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생활지원팀(780-2081)에 직접 방문해 교육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밀의 소비 촉진과 다각적 활용방안을 확산하고자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며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집중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속도’

156억 투입 15개 지방하천 복구...우기 대비 총력



담양군이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재해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5개 지방하천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국도비 156억 원을 투입해 재해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담양지역 일대에는 최대 641.5mm의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15개 지방하천에서 제방 유실과 시설 파손 등 연장 22.9km의 피해 사례가 발

생, 107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군은 하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에 나서 지난해 11월 1차 복구를 완료했다.

이후 신속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 4월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들어갔으며, 우기 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히 주요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항구적인 재해복구 사업을 통해 앞으로의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